

# 주민들 자발적 나눔과 기부... 복지 울타리 '울곡형 자치복지'

김천시 울곡동행정복지센터는 울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폭 넓은 민관협력으로 특색있는 지역맞춤형복지사업을 발굴해 주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울곡형 자치복지'의 청사진을 밝혔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어두운 뒷골목에 소외감을 더하고, 풍요로운 울타리 안의 빈곤은 상실감을 더한다. 경북혁신도시 조성으로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 된 김천시 울곡동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실감은 도시발전이라는 성과의 큰 그림자처럼 더욱 크다. 울곡동의 2만여 명의 주민들은 든든한 복지 울타리 속에서 '다함께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삶의 일상'을 꿈꾸고 있다.

2면에 계속



月刊

정치와 사람

곧 독자들  
결으로 !



# “행정복지센터 목적… 주민의 복리 증진…” “김천시 율곡동 특화사업 계속 발굴할 것”

매주 화금 ‘나눔냉장고’ 운영…취약계층 식재료 제공  
‘행복도시 텃밭’ 다양한 농작물 공동 경작 나눔 활동  
거동 불편한 가구 직접 방문해 식재료 공급 특화사업  
‘취약계층 대상 침구류 세탁사업’ ‘휠체어 무상대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행복가동대, 복지사각 발굴 역할

## ■ 민관협력 통한 지역맞춤형복지사업 추진

“혼자 가면 길이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율곡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의 가치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출범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년간 율곡동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 지역맞춤형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인정이 꽃피는 나눔냉장고’와 ‘함께 나누면 행복한 텃밭’은 올해로 각각 6년차, 3년차를 맞이하

직접 방문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찾아가는 나눔냉장고’를 연계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걱정을 해소하고 특화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율곡동은 관내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올해부터 이들의 가사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침구류 세탁사업’을 시행했다. 율곡동에서 대상가구 발굴과 함께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상담과 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대상가구를 방문해 침구류 수거부터 세탁 및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들어 율곡동에 휠체어 대여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뜻있는 주민의 휠체어 기증으로 ‘휠체어 무상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율곡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는 동안 휠체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일상의 편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 인적 네트워크 활용…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뚜렷했던 사계절의 경계가 기후변화로 희미해진 가운데 주민들의 나눔과 기부로 채워지는 율곡동은 언제나 따스한 봄날이다. 연중 이어지고 있는 나눔과 기부



며 율곡동의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자치복지의 이정표가 됐다. 올해부터 ‘취약계층 대상 침구류 세탁사업’과 ‘휠체어 무상대여서비스’를 시행해 어려운 이웃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그동안 먹거리 제공 중심이던 복지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균형을 맞췄다.

## ■ 취약계층 먹거리 걱정은 덜고 삶 여유 더해

율곡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나눔냉장고’를 운영해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지원 특화사업으로 ‘행복도시 텃밭’에서 다양한 농작물을 공동 경작해 연중 나눔냉장고에 공급해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눔냉장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위원들이 직접 밑반찬을 만드는 ‘율곡 반찬데이’와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행렬은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의 든든한 토양이 되고 있다. 율곡동의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행복가동대’ 등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공공·민간 자원발굴과 연계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걷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민관협력 속에서 다양한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치는 한편, 튼튼한 민관협력의 기반 위에 주민 모두가 함께 그려나갈 자치복지 1번지, ‘누구나 함께 누릴 복지’ 율곡동의 청사진이 기대된다.

## ■ 김천시 율곡동장 “행정복지센터, 주민 복리 역할”

김병하 율곡동장은 “행정복지센터의 존재 가치는 바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주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삶의 질은 높이고 일상에 여유를 더할 수 있도록 율곡동만의 특화사업을 계속 발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고 공동체 정신 함양”

제26회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우수한 봉사활동 모델 선발·시상  
청소년부 여가부 장관상 허영리  
꿈지락발전소, 우수터전 장관상

대구가 주최하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대구청소년성장한DAY' 2024년 제26회 대구청소년자원봉사대회'가 지난 9일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 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봉사활동 모델을 선발 및 시상해 대구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친구, 가족,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열리게 됐다.

대구는 지역사회 및 공공의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한 청소년, 동아리, 지도자 등 5개 부문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며,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 4개 기관에서 29개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부문에서 허영리(대구대학교 4학년) 학생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의 프로그램 준비 및 시설관리, 정사·진로·학습지도 등 멘토링 활동의 다양한 자원봉사와 함께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실 등 교육봉사, 한국 음식 나눔 등 한국문화 알리기, 글로벌캠프 봉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 올해의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지역의 많은 청소년, 동아리, 지도자들이 수상했다.

아울러 우수터전 부문에는 여성가족부장관상에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꿈지락발전소, 대구광역시장상에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아름드리, 달서구립 달서영어도서관이 영예를 안았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의 공동체 정신 함양에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수상한 청소년, 동아리, 지도자, 우수터전에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

결혼, 출산, 돌봄까지 모든 것을  
경북이 책임지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산아제한 포스터

연번	분야	실명	연번	분야	실명
1	청년 (4)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 활동 운영	34	청년 (4)	농협학교 간식 지원 플랫폼 제공
2	청년 (4)	청춘시 연애용 슬로마일 운영	35	청년 (4)	농협학교 간식 업체 정보 제공
3	청년 (4)	예비 임대주택을 위한 행복가족여행	36	청년 (4)	농협 독서 동아리 경상북도 농협도서관 구축
4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37	청년 (4)	아름다움 간접 돌봄센터 운영 확대
5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38	청년 (4)	24시 시민제 보육 지원 확대
6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39	청년 (4)	119응급처치 편의점 운영
7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0	청년 (4)	아이돌로미 치유개선포(수당) 지원
8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1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9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2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0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3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1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4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2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5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3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6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4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7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5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8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6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49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7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0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8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1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9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2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0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3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1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4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2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5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3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6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4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7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5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8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6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59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7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60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8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61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9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62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30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63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31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64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32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65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33	청년 (4)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프로젝트 관광 지원	66	청년 (4)	통제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경상북도  
지속성과성장본부

연번	분야	실명	연번	분야	실명
67	청년 (4)	K-UMI 청년장주 공동주체 보급	100	청년 (4)	아이돌봄 해피투게더 경북 경북인 사행
68	청년 (4)	마인드아카데미 청년장주 공동주체 보급			
69	청년 (4)	청년취업을 위한 진로지원 서비스 제공			
70	청년 (4)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71	청년 (4)	청년취업을 위한 진로지원 서비스 제공			
72	청년 (4)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73	청년 (4)	육아기 부모 단속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74	청년 (4)	소상공인 청년장주 공동주체 보급			
75	청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속제도 시행 중소기업 유대			
76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77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78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79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0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1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2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3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4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5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6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7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8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89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0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1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2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3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4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5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6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7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8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99	청년 (4)	아이돌봄 근무 사유실지 지원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4

## 군위군 산성면, 자원재활용 창고 증축

대구 군위군 산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9일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599번지에 위치한 새마을 자원재활용 창고에서 증축 준공을 기념하는 헌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헌판식

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하여 각급 기관단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각리장,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새마을 자원재활용 창고 증축 사업은 지

난해 산성면 새마을협의회의 뛰어난 실적에 힘입어, 군으로부터 상 사업비 1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기존 창고에 약 24㎡의 공간을 증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새로 확장된 공간은 자원재활용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호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차원 행정통합 추진… 속도 내주기를”

“청사 3개로…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취지…”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 몰려오는 환경 조성”

홍준표 대구시장 20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대구경북이 하나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오는 환경이 조성돼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의회 소제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광건설단에 대해서는 “윤재욱 의원이 발의

하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대구마라톤대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엘리트 선수들에게 제대로 알려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경제국에 대해서는 “최근 직원채용 관련 보고를 받고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며, “수차례 간부회의에서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

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 결과 부적절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운영 관련 조례는 실수요자를 위한 수익계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법에 위반된 집단 떼쓰기에 흔들려서는 안되고 원칙대로 대응하되, 원안 통과 불가시 철회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교통국에 대해서는 “최근 도시철도 4호선과 관련해서 지금 와서 지하화 하자면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20년 뒤 UAM 등 미래 교통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하화에 따른 예타 통과 불가와 수천억의 예산 증액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원인 대부분은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한 누전 사고가 많다”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다시 한번 전통시장 화재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각 실국장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하여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라”며, “아울러, 전 직원들은 연초부터 시행한 업무들을 정리하여 미흡했던 것은 보완하고 문제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연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 육아 친화적 달성군 만들기 공감대 형성

하반기 육아 토크콘서트 관내 약 1000명 부모 참석



달성군은 지난 16일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육아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육아 토크콘서트는 아이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아이돌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 보건복지부와 대구CBS가 공동 주최하고 달성군과 달성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저명 강사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4회째를 맞이한 금번 행사에는 관내 거주하는 약 1,000명의 부모 또는 예비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BOS 오케라단의 웅장한 공연을 시작으로 다듬어온 유망한 개그우먼 김지선 씨와 조선희 아주대학교 정선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두 강사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노하우와 함께 육아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방향책으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어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자녀가 꿈을 꿀 수 있고, 부모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 청년과 함께 ‘저출생’ 해법 아이디어 토론

저출생 극복 대학생 토크콘서트 지역 대학생 등 60여명 참석해 “정책에 청년들 의견 우선 반영”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시즌2에 반영할 정책 아이디어를 대학생들과 함께 논의했다.

경북도는 20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지역 대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학생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저출생 문제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적 난제로 향후 출산과 육아를 경험할 청년세대의 현장 의견과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토크콘서트는 △저출생 극복 정책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저출생 극복 대학생 토크콘서트 △저출생 극복 퀴즈쇼 △전문가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저출생 극복 정책 슬로건 공모전은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대학생 89명이 슬로건 공모전에 참석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총 5점(대상 1, 최우수 2, 우수 2)이 선정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다니는 2005년생 P씨는 경북도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의 의미를 담은 “경복의 품에서, 봄을 맞이할 아이들”을 제안해 대상을 차지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청년들의 시각을 통해 다시금 저출생 문제를 바라본 소중한 시간이었고, 향후 마련될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대회 개최

활동 영상물 상영·유공자 표창 시군 회원 등 800여명 참석

경북도는 20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국가유공자·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나라 사랑과 화합을 다짐하고 호국보훈 정신 확산의 밑거름으로 만들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과 경상북도 보훈·안보단체 도지부장, 시군지회장,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난타공연, 2024년 보훈단체활동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 장구 공연, 태권도 시범,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도민의 나라 사랑 정신이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본 행사를 맞아 김용덕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등 11명에게 국가보훈발전과 안보의식 확산,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 및 표창패를 수여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가유공자와 가족 나라 사랑 한마음대회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과 호국 정신이 후대에까지 널리 전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상북도도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호국보훈의 고장으로서 보훈 선양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 독도 웹툰 ‘몽치탐정의 수수께끼 파일 2’ 공개

경북교육청은 독도 교육의 선도 기관으로서 새로운 독도 웹툰 ‘몽치탐정의 수수께끼 파일 2’를 개발해 20일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웹툰은 2022년 제작된 ‘몽치탐정의 수수

끼 파일 1’의 후속작이다. 1편은 사이버독도학교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학생들이 친숙하게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도내 교사들로 구성된 개발팀을 꾸려 2편 제작을 추진했다.

‘몽치탐정의 수수께끼 파일 2’는 초등학교 5학년인 주인공 소미와 탐정 능력을 지닌 반려견 몽치가 울릉도와 독도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웹툰은 독자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즐기면서 이사부 장군의 우산군 복속 과정,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구성됐다.

정원환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지)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원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영천, 첨단부품 관련 기업 투자 MOU 체결

한호에코스티(주)·(주)한호이노베이션  
2027년까지 101억 투자·19명 고용  
자동차 변속·감속기 관련 특허 보유

영천시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시와 한호에코스티(주), (주)한호이노베이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영천시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부품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호에코스티(주)와 (주)한호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01억원을 투자해 19,187㎡(5,814여 평) 규모 부지에 자동차 감속기 및 변속기 등 기어류 부품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투자기간 동안 19명의 신

규 고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호에코스티(주)는 2022년 6월 설립해 현재 본사는 영천첨단부품산업소재산업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변속기 및 감속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주)한호이노베이션은 2012년 12월 설립해 E-커머스사업을 운영 중이며, 한호에코스티(주)와 협업을 통해 전장부품 시장수요 증가에 대비한 자동차 부품 관련 신사업 진출을 꾀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친환경미래차 시대를 맞아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업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며, “이번 한호에코스티(주)와 (주)한호이노베이션의 투자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영천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송군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

이민女 ‘애플시스터즈’ 합창단  
지역 발전 이바지한 공로자 표창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월 20일 청송군체육센터에서 관내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송군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청송군다문화가족사랑봉사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송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애플시스터즈’ 합창단의 식전공연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풍성한 감동을 선사했다.

올해 유공자 표창은 결혼이민여성으로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주왕산면 홍로안, 안덕

면 진가르도세, 진보면 정다은 씨가 군수표창을, 다문화가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현동면 정해옥, 이우슬라이레, 현서면 장은정 씨가 군의장 표창을 받았다.

2부에서는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수업에 80% 이상 출석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교육 수료증”을 전달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8개 읍면 다문화가족을 두 팀으로 나눠 진행한 명랑운동회는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화합의 무대였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신감이 만들어진 장기자랑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속의 청송, 청송 속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청송이 글로벌 청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 영양, 경북 에너지대상 시군 부문 ‘최우수상’

상사업비 4천만원 확보  
군 올해 첫 수상 실적

영양군은 지난 19일 영주시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4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였다.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시군·민간단체·개인을 포상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로, 영양군은 올해 첫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영양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

역에너지 자립에 힘써왔으며, 또한 LPG배관망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가스 사각지대인 영양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요금 절감에 앞장섰다.

또한 영양군에선 전국 최대 규모 풍력발전단지인 620여 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력 자급률이 500%를 넘는 친환경 도시로써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수상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우리군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 안동소방서 영양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기관단체장 소방대원 등 참석  
소방기술 배양·체력증진 계기

안동소방서 영양의용소방대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20일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영양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관하고, 영양군과 안동소방서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영병 영양군의회 의장, 김남희 안동소방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영양의용소방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용소방대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방기술 능력배양 및 체

력증진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으며 생활안전구조 이어달리기를 시작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경기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는 엄주기 영양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오도창 영양군수는 그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써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영양군민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송명주 기자

## “울릉군 산채산업 보호… 물영정귀 홍보”

근래 불법 반출 산채종자 실정  
전담반 편성… 계도와 특별단속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1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및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울릉군정, 의회, 농협, 농업인단체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 산채산업 보호 결의대회”와 대체작물인 물영정귀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개최했다.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소속단체인 농촌지도자울릉군연합회, 생활개선울릉군연합회, 한국후계농경영인울릉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울릉군연합회, 한국 4-H 울릉군본부, 슬로푸드울릉군지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릉군농업을 선도하는 단체이다.

울릉군은 최고 수준의 질 좋고 맛있는 산채를 생산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와 농업인구 감소 및 물류비 등 대외적인 불리한 여건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근래 불

법으로 반출되고 있는 산채종자로 인하여 대외 경쟁력 하락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1월부터 주요 산채자원인 부지갱이, 산마늘, 전호 등 종자(종근 포함)의 불법 관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계도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산채종자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농업인 결의대회 개최와 농업인 스스로가 울릉군 농업을 지키자는 의식개혁운동에 동참하여 울릉군 산채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울릉도 사동항 일원에서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간기능 등 약성이 좋다고 알려진 물영정귀 나물 홍보를 위하여 물영정귀밥, 해장국, 물영정귀김치, 볶음나물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이정수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농업인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 종자반출을 막아내 울릉도 산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농업인 단체가 합심하여 자발적으로 종자 반출을 막기 위한 자정운동 전개와 물영정귀 홍보시식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며, 울릉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채산업을 살리겠다”고 역설하였다.

정윤환 기자

## 전통시장 ‘울진바지게 포GO’ 페스티벌 성료

울진바지게시장서 감성 축제  
울진특산물 밀키트 요리대회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울진 바지게시장에서 제3회 울진 바지게 포GO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울진바지게 포GO 페스티벌은 지역민 화합의 한마당이란 제1회 포GO 페스티벌의 정신을 계승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고객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 먼저, 15일에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행사가 펼쳐졌다. 흥겨운 음악과 무료로 제공된 맥주 한잔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즐기는 감성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울진국악협회의 고구려 복소리, 각설이 타령 등 새로운 무대로 흥겨운 축제가 되었다.

특히, 울진바지게시장 문화관광행사업단이 함께 참여하여 ‘울진특산물 밀키트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페스티벌의 흥미를 더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포GO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이 상생하는 울진만의 특화된 전통시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 영덕, 고향사랑기부자 증정 행사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쌀 소비촉진을 위해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혜택과 함께 쌀 또는 어간장을 증정하는 기부 참여 이벤트를 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고 3만 원 상당의 담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기부자에게도 적절한 혜택이 주어진다. 영덕군은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이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존의 혜택과 함께 기부자 100명에게 NH농협은행에서 협찬하는 햅쌀 5kg을 증정했다.

조여은 기자

## 영양군보건소, 구강교육 인형극 개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피터팬의 치아튼튼’ 주제

영양군 보건소는 오는 11월 20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인형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형극은 ‘피터팬의 치아튼튼모험’이란 주제로 공연 중 배우들이 객석에 직접 나와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시간과 공연장 입구에 인기 캐릭터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였다. 보

건소는 이번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양치 방법을 포함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치아 건강을 위한 교육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진행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구강 교육을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이번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재미있게 배우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권윤동 기자



김천시 남면, 취약가정 보일러 교체 수리

김천시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명과 함께 주거환경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보일러 교체 및 수리사업을 진행했다.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11인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대상자 선정, 집수리 관련 전문가 물색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날 대상자 2명은 복지 소외 계층으로 형편이 어려우나 행정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로 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남면 지역주민 통합에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경산 지역 6개 대학교 창업 네트워크 교류

‘경산 창업 포럼’ 소통의 장 마련

경산 투자 생태계 활성화’ 주제

투자 확정 기업 2개사 소개 가져

경산시는 19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역 내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대학생, 투자 전문가, 창업지원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 창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산시가 주최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했으며,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관내 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가 참여해 지역 창업 붐 조성, 창업 및 투자 정보 공유,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2022년 시작해 3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경산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스타트업의 투자 역량 강화 및 지역 투자 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본 행사 전 진행된 모의 IR 데모데이에서는



경산시는 19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산 창업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 내 스타트업들이 실제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피드백을 통해 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실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부 개회식에서는 경산시의 벤처창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모의

IR 우수기업 2개사에 대한 시장상 수여, 투자 확정 기업 2개사에 대한 세리머니와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퍼포먼스 등이 이어

졌다.

이날 투자 확정 기업은 ㈜대경기술지주와 와이앤아치(주)가 공동 운용하고 경산시가 참여하는 초기 창업 지원 펀드 투자 기업으로 4D 이미징 레이더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딥퓨전에이아이(대표 유승훈)가 2억 원, 기업용 탄소배출 관리 자동화 탄소회계 솔루션을 개발하는 ㈜리빗(대표 이정민)이 4억 원을 각각 투자받았다.

2부에서는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저명한 연사들이 참여해 △성공 창업 사례 △창업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과 그룹 멘토링에 참여해 참가자들이 투자와 관련한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스타트업 발굴에서 성장 지원까지 경산시가 비수도권 최대 벤처창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도군 고평교 개체공사 준공식 개최

노후 교량 2년 4개월 만에 준공

유동리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

청도군은 19일 화양읍 고평리 일원 고평교 개체공사 현장에서 김하수 청도군수, 군의원, 기관 단체장 및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평교 개체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화양 고평교 개체공사 사업은 지난 2019년 청도군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요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9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면도 101호선(화양읍 범곡리~화양읍 삼산리) 내 위치한 교량인 고평교 개체공사는 기존 노후 교량을 해체하고 교량 연장 185m, 폭 11m, 접속



도로 640m를 설치한 사업으로 2022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년 4개월 만에 준공됐다.

기존 고평교는 노후되고 폭이 좁은 잠수교로 지역주민들이 평소 통행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올해 준공함으로써 과거 여름철 잦은 침수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고평리, 소라리, 유동

리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통행 안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양읍 고평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평교 개체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준공식 자리를 빌려 본 공사의 조기 준공을 기원하며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평교 개체공사 준공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안전한 통행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평교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 김천시, 김장 쓰레기 배출 홍보 나서

각종 채소류 뿌리·껍질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김천시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올바른 김장 쓰레기 배출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김장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구분되며 적절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김장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온 흙이 묻은 배추 겉잎 및 각종 채소류의 뿌리·껍질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절인 배추, 양념이 묻은 채소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식물쓰레기로 염분 및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RFID 음식물 종량기 또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배출 방법 홍보와 함께 김장 쓰레기 감량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가공 및 1차 손질된 식재료를 적정량 구입하고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 음식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임창현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의 정착으로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가정과 식당에서 감량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성주군 가업승계 관련 세법 법률 교육

농업인 60여명 대상 진행

성주군은 “부모·자식 가업승계농 교육”의 일환으로 농업인 60여명을 대상으로 18일, 22일 이틀동안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가업승계 관련 세법 및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부모·자식 가업승계농 육성 교육”은 가업승계농의 성공적인 영농 승계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가업승계농 맞춤형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가업승계의 핵심적 요소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실질적인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교육생의

집중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를 들거나 강사와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낯설고 어려운 세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첫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농업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세법과 경영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성주군수 이병환은 “가업승계농은 부모의 농사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은 만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며 농촌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업승계농에게 맞는 다양한 전문 교육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고, 소득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 2024 칠곡인문학마을 결과공유회 개최

마을 포스터 및 사진 전시

협의회 사업내용 공유

칠곡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난 16일 북삼읍 북함문화공간에서 ‘인문학 파티, 우리의 오늘, 나의 2024’라는 주제로 2024년 칠곡인문학마을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2024년 인문학마을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 포스터 및 사진 전시와 더불어 올해 인문학마을 활동을 연상, 기억,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조형물로 만들어 캔버스에 부착하는 참여형 전시로 꾸며졌다. 또한, 칠곡인문학마을협의회 사업내용 공유, 올해 인문학마을에 처음 참여한 3개 마을의 소감 발

표 등 2024년 인문학마을 활동에 대해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부터 칠곡인문학마을사업은 문화도시조성사업에 포함되어 더욱 다양한 세대 및 계층의 지역민들과 문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방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신규마을 3개소를 포함 총 25개 마을이 인문학마을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날 칠곡인문학마을협의회(회장 이성기)는 칠곡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현장에서 칠곡문화관광재단에 기탁하여 ‘함께의 가치’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려는 칠곡 인문학마을 주민들의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

## 구미시 ‘청년농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맞춤형 교육

청년농업인들 애로사항 청취

농업 전문가들 아이디어 전수

구미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선산문화회관에서 ‘청년농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및 맞춤형 교육(3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 자리 가 마련됐다.

1부 간담회는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관련 부서장 8명이 함께해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농지 확보, 시설 지원, 경영 자금 문제 등 초기 영농활동



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부 맞춤형 교육에서는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전수했다. 이상혁 경기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장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스마트농업 트랜

즈’를 주제로 강연하며 농업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낙삼 좋은상품연구소 대표는 ‘농식품 창업 상품발굴 및 기획 실습’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직접 전수했다.

구미시는 2030 청년농업인 1천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다.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경영 컨설팅, 창업지원,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종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호섭 부시장은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며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 고령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노무 컨설팅

인사·복무 등 주요 사항 안내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15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 지원을 위한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노무관리 컨설팅은 교육공무직원 인사, 복무 등 주요 사항 안내, 현장 질의응답, 담당자 고충상담, 인사기록카드 점검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업무담당자는 “매번 반복되는 성격의 업무지만 자주 변동되는 규정과 다소 생소한 노무관리로 업무처리나 공무직 고충상담이 힘들었는데 이번 컨설팅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호상 교육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성주 선남면 영농폐기물 수거

성주군 선남면은 20~29일까지 마을별 지정장소에 임시로 적재되어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선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농가에 부담이 되고 이를 제때 처리되지 못하여 들녘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과 같은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 또는 산불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거 전 이장회의 등을 통해 농가에서 마을별 지정장소로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홍보하였다.

도재훈 기자



영주 “기회발전특구·공공기관 유치 집중”

경제 활성화 목표로 시책 추진  
용역 결과 토대로 내년 제도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준비

영주시는 1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영주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과 ‘영주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훈 부시장을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 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용역은 지역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영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영주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주요 내용은 △영주시 현황 및 주력산업 분석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전략 수립 △지원 및 규제 개선 사항 발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영주시는 지난 6월 발표된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에서 보완 후 재심의 결과를 받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영주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맞춰, 영주시의 지역 특성 및 특화 산업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용역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

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의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담고 있다.  
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한 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가 원칙인 사안으로서, 인구 감소 도시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영주시는 35개 시군과 함께 인구감소 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선언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민선8기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재훈 영주부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의성, 노인의료 건강돌봄 교육

의성군은 지난 7월 보건소 실무자 1차 역량강화 교육에 이어 지난 19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조사 및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의료 건강돌봄 전문성 강화를 위해 2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의료·건강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9월, 공중보건의사,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로 이뤄진 보건 의료 사업팀이 구성되었으며 방문의료(진료·간호), 치매·정신·재활 건강관리 등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교육내용은 △노인 만성질환 관리 △노인성 치매·우울증 예방 및 관리이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아솔 가정의학과장, 안동성소병원 임종우 정신건강의학과장이 강사진으로 초빙되어 각 2시간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의성 전 군민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건강 돌봄 제공으로 살기 좋은 의성, 노후 걱정 없는 의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27년간 2만여명 참여... 문경 ‘평생학습관’ 개관식

1998년에 이후 시민 학습 지원  
7월 여성회관→평생학습관 변경

문경시는 지난 19일 평생학습관(구, 여성회관) 전정에서 평생학습관 개관식을 가졌다.  
문경시 여성회관은 1998년에 개관 이후 27년

간 2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문경시 평생학습관의 새로운 컨트를 타워로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배움과 자기계발을 이어갈 수 있는 ‘문경시 평생학습관’공간으로 만들어져 시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로서 모든 시민이 배우고, 나누고, 배움으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예천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예천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일~25일)중인 20일에 예천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호명초등학교 교직원, 예천경찰서 및 예천군드림스타트팀이 주도하여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내 초등학교 2개소(호명초, 예천초) 정문에서 등하교 시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법,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징계권 폐지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 부모의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송명주 기자

■ 기고문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위한 난방용품 사용법



형송소방 예방안전과 소방사 서광훈

겨울철은 전열난방 기구 이용이 많은 계절이어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기매트류는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다른 전기제품보다 높은 안전성을 요구한다. 또한 보온재 표면의 노후로 누설 전류가 밖으로 흐르게 되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으며, 고온 상태로 장시간 이불을 덮어 열이 축적되면 침구류에 착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사용 빈도가 많은 만큼 건조한 실내 공기는 가연물에 착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그 위험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방지 및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구매 시 반드시 안전 인증(KC 마크 및 안전 인증 번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장시간 사용에 따른 화상을 막기 위해서는 타이머 기능을 설정하고, 사용 시에는 최소 1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전기장판은 피부와 바로 접촉되지 않도록 얇은 이불을 깔고 낮은 온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전기 장판이나 매트 내부 온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장판 위에 깔았던 이불은 사용하지 않을 때 치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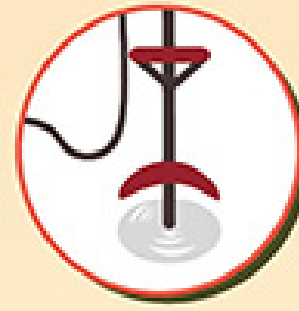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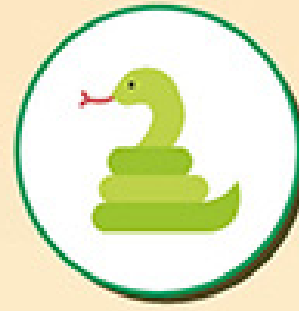
둘째, 전기매트는 짧은 시간에 가열되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끄며, 보관 시 종이처럼 접지 말아야 한다. 전기매트를 접는 경우 내부 열선이 꺾여 파손되거나 망가져서 이를 모르고 사용할 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보관 시에는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셋째,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설치하고 주변의 물건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듯 화재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단지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가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습관을 통해 빈번히 화재가 발생하는 겨울철, 안전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모두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화재 예방을 습관화하여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 가을철 **안전** 주의사항



## 벌 쏘임



### 예방수칙



향이 강한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은 자제하기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색의 긴 옷차림 선택하기



주변 벌집 확인하기



벌집을 건드렸다면 몸을 낮추고  
20m 이상 빠르게 뛰기



### 응급처치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벌침 제거하기

※손·핀셋 NO!



냉찜질 등을 이용하여 붓지 않게 하고  
경과 관찰하기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하기



## 뱀 물림



### 예방수칙



야외활동 중 뱀 발견시 접근 금지



뱀이 구별되지 않는 우거진 풀숲에  
들어가지 않기



###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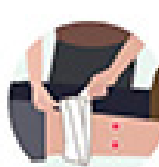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119신고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앉거나 누워 안정 취하기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깨끗한 옷 등으로 덮어 병원으로 이동하기



상처의 5~10cm 상방에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넓은  
천으로 묶기



술이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수는  
마시지 않기



질병관리청